



차이나

CHINA Market Report

마켓 리포트

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
전화 : 86-10-6505-2672/3

이메일 : beijingk@kita.net

2024년 상반기 중국 경제무역 동향 및 시사점

목차

- I. 2024년 상반기 중국 거시경제 동향
- II. 2024년 상반기 중국 수출입 동향
- III. 전망 및 시사점

요약

- 2024년 상반기 중국 GDP는 5.0% 증가한 61조 6,836억 위안, 산업생산 부가가치와 소매판매액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6.0%, 3.7% 증가, 고정자산투자는 3.9% 증가
- 중국의 상반기 FDI(해외→국내)는 전년동기 대비 Δ 29.1% 감소한 4,989억 위안(약 95조 원), 1~5월 ODI(국내→해외)는 19.9% 증가한 4,276억 위안(약 78조 원) 기록
- 2024년 상반기 중국 수출·입은 각각 3.6%, 2.0%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동기 대비 8.6% 증가, 6월 수출은 8.6% 증가, 수입은 Δ 2.3% 감소
- 상반기 국가별 수출은 對ASEAN, 미국 등이 증가한 반면, 對한국, 일본은 감소, 품목별로는 반도체, 자동차, 가전 등이 크게 증가, 철강은 수량은 증가했으나 금액은 감소
- 국가별 수입은 對아세안, 한국 등은 증가한 반면, 對미국, EU 등은 감소, 품목별로는 반도체, 컴퓨터 등 전자제품이 크게 증가한 반면, 천연가스, 석탄 등은 단가 하락으로 감소
- 2024년 중국 GDP 성장률은 5% 내외로 전망되고 있으나 주요국의 대중 보호무역 확대, 지정학적 갈등, 정부의 내수진작 효과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 직면

1. 2024년 상반기 중국 거시경제 동향

① 경제성장률

■ 2024년 상반기 중국 GDP는 5.0% 증가한 61조 6,836억 위안(한화 약 1경 1,717조 원) 기록

- 1차 산업 GDP는 3.5% 증가한 3조 660억 위안(약 70조 원), 2차 산업은 5.8% 증가한 23조 6,530억 위안(약 4,493조 원), 3차 산업은 4.6% 증가한 34조 9,646억 위안(약 6,642조 원)으로 집계

- 2024년 분기별 GDP 성장률은 1분기 5.3%, 2분기 4.7%로 상반기 5.0% 기록

* ('23.Q1) 4.5% → ('23.Q2) 6.3% → ('23.Q3) 4.9% → ('23.Q4) 5.2%

【최근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】

【최근 연도별 GDP 성장률 추이】



자료: 중국 국가통계국

■ 상반기 중국의 산업생산(일정 규모 이상) 부가가치는 전년동기 대비 6.0% 증가했으며 제조업, 전기·열·가스·수도 생산 및 공급업, 광업 부가가치는 각각 6.5%, 6.0%, 2.4% 증가

- 제조업 중 설비제조업, 첨단제조업 부가가치는 각각 7.8%, 8.7% 증가했으며 3D 프린팅 장비, 신에너지 자동차, 집적회로 생산량은 각각 51.6%, 34.3%, 28.9%로 크게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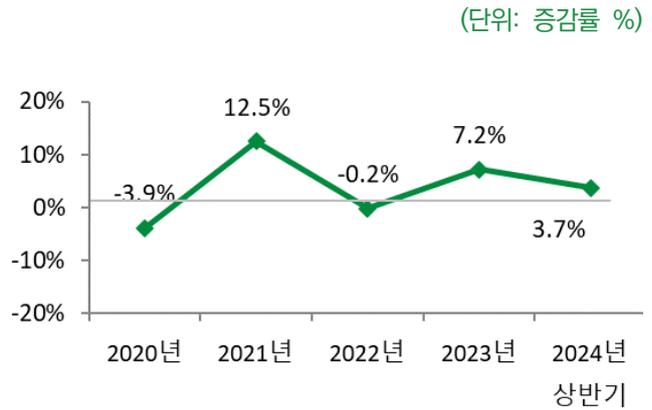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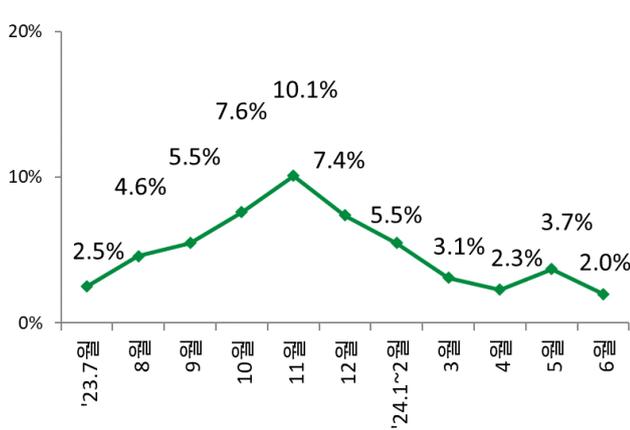
■ 상반기 농업 부가가치는 4.0% 증가했으며 곡물의 총생산량은 약 1억 4,978만 톤으로 2.5% 증가, 축산업 육류·가금류 총생산량은 약 4,712만 톤으로 0.6% 증가

② 소비와 물가

- 2024년 상반기 중국의 소매판매액은 약 23조 5,969억 위안(약 4,483조 원)으로 전년동기 대비 3.7% 증가 (* 참고. 상반기 온라인 소매판매는 9.8% 증가하는 등 전자상거래 규모 확대 가속화)
- 금은보석류, 화장품류 소매판매액은 각각 0.2%, 1.0% 소폭 증가한 반면, 스포츠·오락용품류, 통신기자재류 소매판매액은 각각 11.2%, 11.3% 증가

【최근 월별 소매판매 증감률 추이】

【최근 연도별 소매판매 증감률 추이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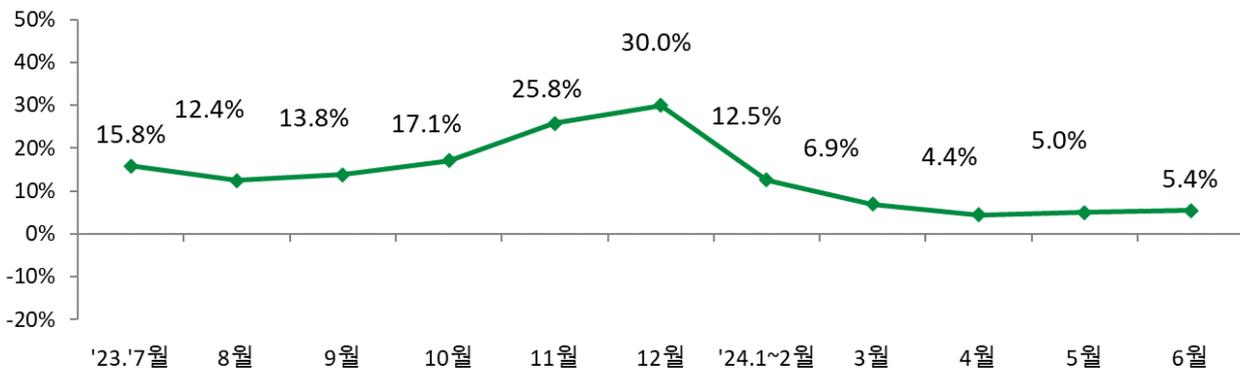
(단위: 증감률 %)

자료: 중국 국가통계국

- 상반기 요식업 소매판매액은 전년동기 대비 7.9% 증가한 2조 6,243억 위안(약 1,259조 원)
* 연도별 요식업 소매판매액 : (2020) 3조 9,527억 위안 → (2021) 4조 6,895억 위안 → (2022) 4조 3,941억 위안 → (2023) 5조 2,890억 위안
- 요식업 소매판매는 작년 리오픈 직후에는 가파르게 증가했으나, 올해는 한 자리 수로 증가세 완화

【최근 월별 중국 요식업 소매판매 증감률 추이】

(단위: 증감률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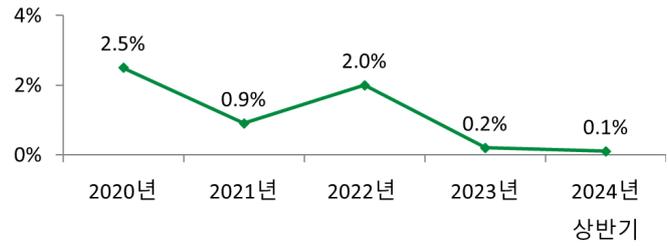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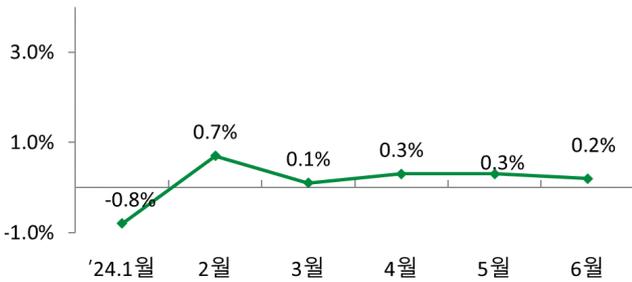
자료: 중국 국가통계국

- 2024년 상반기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전년동기 대비 0.1% 상승했으며, 1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낮은 수준 지속
- 식품류 Δ 2.7% 하락(육류 Δ 3.6%, 신선식품 Δ 2.7% 등), 비식품류 0.8% 상승(수송용 연료 3.6%, 의류 1.7% 등), 서비스업 0.9% 상승(관광 7.0%, 교육 1.7%, 중의약 5.3% 등)

【2024년 상반기 월별 CPI 추이】

【최근 연도별 CPI 추이】

단위: 증감률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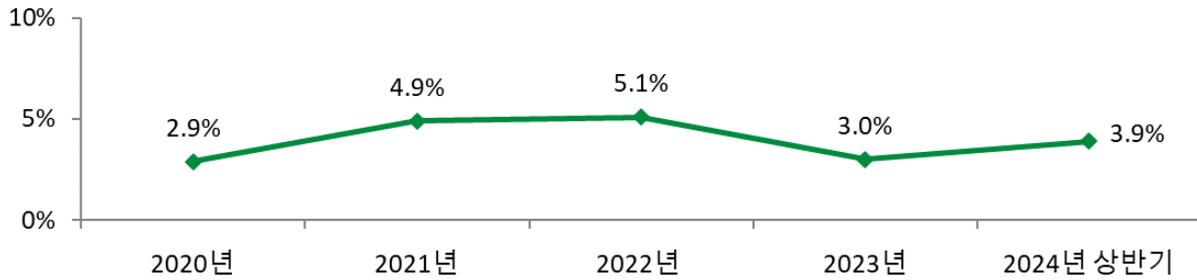
자료: 중국 국가통계국

3 투자

- 2024년 상반기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3.9% 증가했으며, 세부적으로 첨단산업 10.6% 증가, 제조업 9.5% 증가, 농림·축산·어업 4.8% 증가, 광업 17.0% 증가, 부동산 개발 Δ 10.1% 감소
- 첨단산업 중 첨단기술 제조업과 첨단 서비스업 투자는 각각 10.1%, 11.7% 증가하였고, 세부적으로 항공·우주선 장비 제조 및 컴퓨터·사무기기 제조 투자는 각각 38.3%, 12.1% 증가, 전자상거래 서비스 투자는 24.1% 증가
- 전기·열·가스·수도 생산 및 공급업 투자는 24.2% 증가했으며, 철도 운송업, 의약품 제조업 투자는 각각 18.5%, 7.1% 증가
- 교육업,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업 투자는 각각 6.7%, 5.1% 증가, 부동산 투자는 202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시장 침체 지속
- 투자 주체별로는 국영기업의 투자가 6.8% 증가, 민영기업 투자가 0.1% 증가

【최근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감률 추이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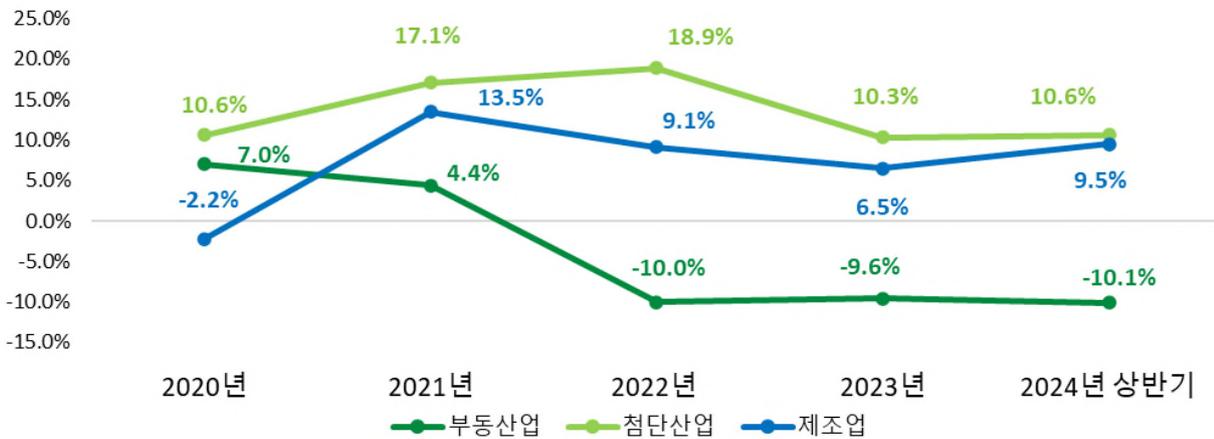
(단위: 증감률 %)



자료: 중국 국가통계국

【최근 중국의 부동산업, 첨단산업, 제조업 고정자산투자 증감률 추이 비교】

(단위: 증감률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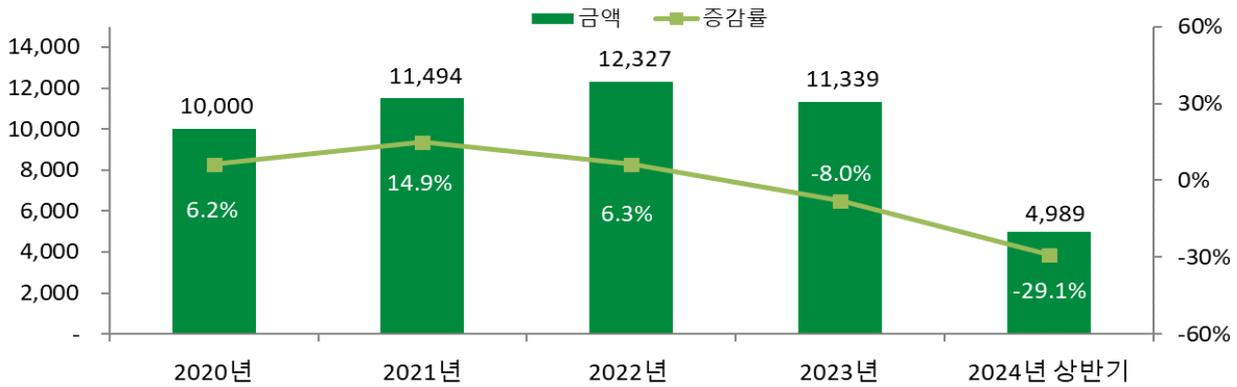


자료: 중국 국가통계국

- (FDI) 2024년 상반기 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(FDI)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△29.1% 감소한 4,989억 위안(약 95조 원), 신규 등록 외국인 투자기업 수는 약 2만 6,870개로 전년동기 대비 14.2% 증가
 - 지정학적 갈등과 중국의 생산원가 우위 약화에 따른 중국내 생산기지의 동남아, 멕시코, 등지로 이전, 위안화 약세 요인 등이 반영
 - 대중국 외국인투자 중 첨단산업 투자 비중은 12.8%로 1.2%p 증가, 의료기기 제조업 투자액은 84.5% 증가, 전문기술 서비스업 투자액은 43.4% 증가하는 등 대중국 FDI 투자 초점이 과거 전통 제조업과 부동산에서 하이테크 제조업, 서비스업 및 첨단산업으로 이동하는 추세
 - 주요국 중 독일, 싱가포르의 대중국 상반기 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8.1%, 10.5% 증가

【최근 연도별 대중국 외국인 직접투자(FDI) 추이】

(단위: 억 위안)



자료: 중국 상무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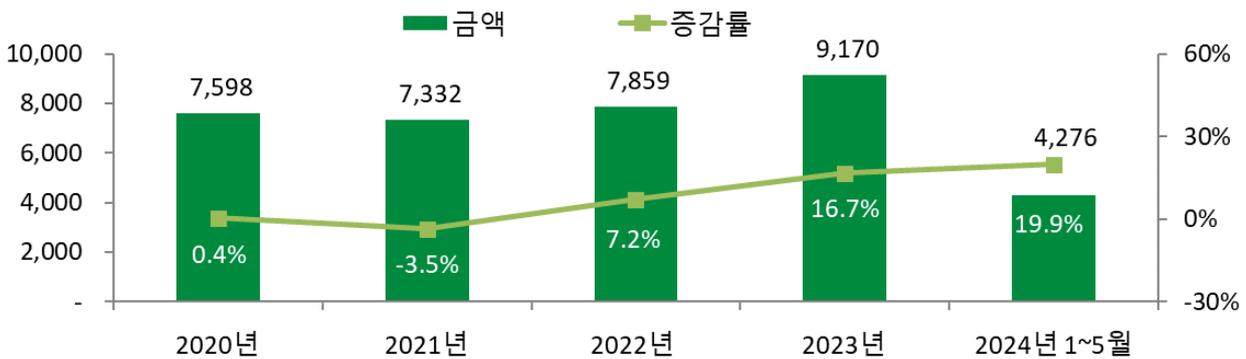
■ (ODI) 2024년 1~5월 누계 기준 중국의 비금융 부문 해외직접투자(ODI)는 전년동기 대비 19.9% 증가한 4,276억 위안(약 78조 원) 기록

● 중국 투자자는 전세계 151개 국가·지역의 4,829개의 해외기업에 비금융 부문 직접투자

* 2023년 말, 중국의 비금융 부문 직접투자 해외기업 수는 약 7,913개

【최근 연도별 중국의 비금융 부문 해외직접투자(ODI) 추이】

(단위: 억 위안)



자료: 중국 상무부

④ 환율 및 외환보유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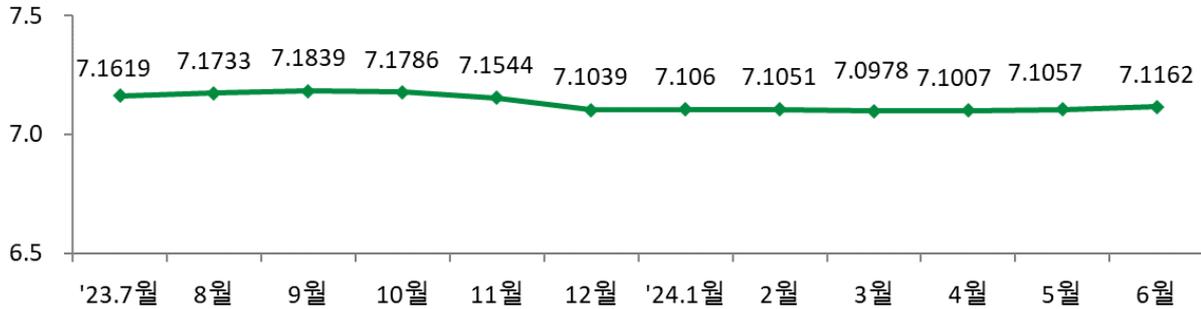
■ 2024년 상반기 평균 위안화 환율은 7.1053위안/달러 수준으로 최근 1년 넘게 1달러당 7위안 선을 상회하며 달러 대비 위안화 약세 지속

● 작년 5월까지 달러당 6위안 후반대 수준이었으나 6월부터 7위안대 진입, 13개월째 7위안 상회

*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: (2023.5월) 6.9912위안/달러 → (12월) 7.1039위안/달러 → (2024.6월) 7.1162위안/달러

【2024년 상반기 중국의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추이】

(단위: 위안/달러)



자료: 중국 인민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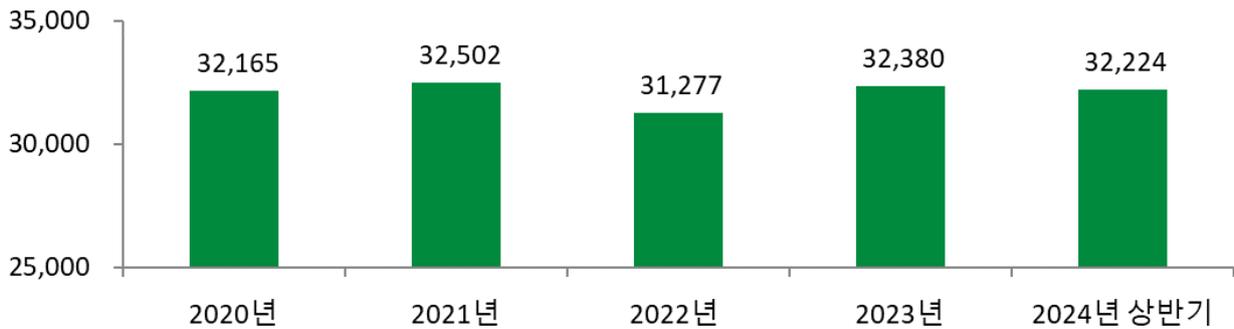
■ 2024년 상반기 중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023년말 대비 156억 달러 감소한 3조 2,224억 달러(약 4,458조 원) 기록

●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11년 부터 3조 달러 이상을 유지

* 연도별 외환보유액(억 달러): (2010) 28,473 → (2011) 31,811 → (2015) 33,304 → (2023) 32,380

【최근 중국의 외환보유액 추이】

(단위: 억 달러)



자료: 중국 인민은행

*기말 기준

2. 2024년 상반기 중국 수출입 동향

① 전체 수출입

- 2024년 상반기 수출은 3.6% 증가한 1조 7,075억 7천만 달러(약 2,363조 원), 수입은 2.0% 증가한 1조 2,725억 8천만 달러(약 1,761조 원) 기록
- 상반기 무역수지는 전년동기 대비 8.6% 증가한 4,349억 9천만 달러(약 602조 원)
- 중국의 6월 수출액은 8.6% 증가한 3,079억 달러(약 426조 원), 수입액은 △2.3% 감소한 2,088억 달러(약 289조 원) 기록

【최근 중국의 수출입 추이】

(단위: 억 달러, %)

구 분		2020	2021	2022	2023	2024년 상반기
수 출	금액	25,900	33,160	35,444	33,790	17,076
	증감률	3.6	28.0	6.9	△4.7	3.6
수 입	금액	20,660	26,794	27,065	25,569	12,726
	증감률	△0.6	29.7	1.0	△5.5	2.0
무역수지		5,240	6,366	8,379	8,221	4,350

자료: 중국 해관총서

② 국가(지역)별 수출입

- (수출) ASEAN(증감률 10.7%), 미국(1.5%), 중남미(11.3%), 인도(1.7%) 등 주요 국가·지역으로의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였고, 對EU(△2.6%), 아프리카(△2.3%) 수출은 감소
- 아시아경제권 내 중국 홍콩(10.6%), 베트남(22.5%)에 대한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, 對한국(△3.7%), 일본(△6.3%) 수출은 감소
- (수입) ASEAN(증감률 2.0%), 중남미(3.5%), 아프리카(14.0%), 러시아(3.9%) 등 주요 국가·지역으로의 수입은 증가하였고, EU(△5.7%), 미국(△4.9%), 호주(△5.2%)로부터의 수입은 감소
- 동북아경제권 내 한국(12.2%), 중국 대만(6.2%)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, 對일본(△3.9%) 수입은 감소
- 상반기 중국의 對베트남 수입이 17.4% 증가하면서, 베트남이 중국의 13대 수입상대국으로 부상

【2024년 상반기 중국의 TOP10 수출입 대상국(지역)】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위	수 출			수 입		
	국가별	금액	증감률	국가별	금액	증감률
1	*ASEAN	2,855	10.7	*ASEAN	1,870	2.0
2	*EU	2,501	△2.6	*EU	1,323	△5.7
3	미국	2,413	1.5	*중남미	1,203	3.5
4	중국(홍콩)	1,366	10.6	중국(대만)	967	6.2
5	*중남미	1,317	11.3	한국	857	12.2
6	*아프리카	849	△2.3	미국	814	△4.9
7	베트남	778	22.5	호주	754	△5.2
8	일본	741	△6.3	일본	745	△3.9
9	한국	728	△3.7	러시아	652	3.9
10	인도	573	1.7	*아프리카	601	14.0

자료: 중국 해관총서

*EU 및 ASEAN 등의 실적에는 상기 개별국가들의 실적이 포함

③ 품목별 수출입

- (수출) 수출 1위, 2위 품목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(비중 4.5%), 집적회로 및 반도체(4.3%)의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6.9%, 21.6% 증가
- 자동차(새시 포함), 가전제품 수출 수량은 각각 25.3%, 24.9% 증가하였고, 수출 금액 또한 각각 18.9%, 14.8%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중국 수출성장을 견인. 철강은 수출 수량은 24% 증가했으나, 금액은 9.3% 감소

【2024년 상반기 중국의 TOP10 수출 품목】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	증감률	금액	증감률	비중
1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963	6.9	4.5
2	집적회로 및 반도체	1,393억 개	9.5	764	21.6	4.3
3	의류 및 부자재	-	-	738	0.0	4.1
4	방직실 및 직물	-	-	694	3.3	3.2
5	자동차(새시 포함)	293만 대	25.3	552	18.9	3.2
6	휴대폰	36,606만 대	4.9	547	△4.7	3.1
7	플라스틱제품	-	-	532	8.3	2.9
8	가전제품	214,024만 대	24.9	490	14.8	2.7
9	자동차부품	-	-	457	5.6	2.4
10	철강	5,340만 톤	24.0	416	△9.3	2.1

자료: 중국 해관총서

*순위는 금액 기준임

■ (수입) 수입 상위 3대 품목인 집적회로 및 반도체(비중 14.1%), 원유(13.2%), 철광석 및 정광(5.7%) 수입액은 전년 대비 각각 10.8%, 2.1%, 10.2% 증가

- 컴퓨터 및 주변기기(5위) 수입액은 전년동기 대비 53.7% 증가, 수입단가 하락 영향으로 주요 에너지 품목인 천연가스(6위), 석탄(11위) 수량은 각각 14.3%, 12.5% 증가했으나 금액은 각각 △0.8%, △9.3% 감소

【2024년 상반기 중국의 TOP10 수입 품목】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	증감률	금액	증감률	비중
1	집적회로 및 반도체	2,589억 개	14.1	1,791	10.8	14.1
2	원유	27,548만 톤	△2.3	1,674	2.1	13.2
3	철광석 및 정광	61,118만 톤	6.2	724	10.2	5.7
4	식량(곡류)	8,418만 톤	4.7	362	△16.4	2.8
5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321	53.7	2.5
6	천연가스	6,465만 톤	14.3	318	△0.8	2.5
7	동광석 및 정광	1,390만 톤	3.7	316	6.7	2.5
8	의약재 및 약품	190,637톤	2.0	258	△4.9	2.0
9	미단조 동 및 동재	276만 톤	6.8	256	12.6	2.0
10	식량(대두)	4,848만 톤	△2.2	252	△19.8	2.0

자료: 중국 해관총서

*순위는 금액 기준임

■ 중국의 상반기 무역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, 분기별 실적도 개선되는 추세. 일대일로 협력국과의 수출입액은 전년동기 대비 7.2% 증가

■ 올해 상반기 철강 수출량은 전년동기대비 약 24% 증가, 철광석, 석탄, 천연가스 수입량은 각각 6.2%, 12.5%, 14.3% 증가하는 등 주요 원자재 무역 강세

■ 6월 수출증가율(8.6%)은 15개월 만에 최고치이며 미국 등 서방 무역상대국의 관세 인상을 앞두고 주문 및 선적이 앞당겨진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

■ 6월 수입은 △2.3% 감소하여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내수부진, 국내소비 취약성을 노출, 중국 수입의 약 1/3은 재수출용 부품으로 지속적인 수입 약화는 향후 수출에 악영향

[2024년 상반기 수출입 실적에 대한 기관별 평가 및 2024년 전망]

구분	기관	주요 내용
중국	 <p>해관총서 (海关总署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 상반기 무역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, 분기별 실적도 개선되는 추세. 일대일로 협력국과의 수출입액은 전년동기대비 7.2% 증가 - 상반기 중국 전체 수출입액 중 4대 교역국(지역)인 ASEAN, EU, 미국, 한국의 수출입액 비중은 각각 15.9%, 12.8%, 10.8%, 5.3% 차지(위안화 기준) - 상반기 중국의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4.3배 증가 - 동기간 민영기업(비중 55%)의 수출입액은 11.2% 증가했으며 국영기업(15.6%), 외국인 투자기업(29.1%)의 수출입액은 각각 1.2%, 0.2% 증가 - 올해 상반기 철강 수출량은 전년동기대비 약 24% 증가, 철광석, 석탄, 천연가스 수입량은 각각 6.2%, 12.5%, 14.3% 증가하는 등 주요 원자재 무역 강세 - 에너지통계국장은 중국의 에너지 수입 분야의 국제 협력이 강화되고 공급처가 다변화됨에 따라 에너지 원자재 수급 공급망이 안정적이라고 분석
	 <p>캐피탈 증권 (首创证券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월 중국 집적회로 및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약 24% 증가했으며,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상반기 중국 수출성장 견인 - 중국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 등 요인으로 중국산 집적회로 및 반도체 수출 단가는 상승 추세며, 수입-수출 단가 격차가 좁혀짐 (*참고 2014년-2018년 상반기 중국의 집적회로 및 반도체 수입-수출 단가 격차는 100개당 25-50달러 수준이었으나, 2018년 상반기-금년 상반기 격차는 약 10-30달러 수준으로 낮아짐)
	 <p>자오상 증권 (招商证券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하반기 중국 수출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, PPI 하락세가 완화되어 수출 단가가 소폭 상승할 가능성 존재 - 반도체 수요 상승 사이클과 글로벌 제조 확대 사이클 추세가 맞물리면서 하반기 중국의 기계 및 전자제품 수출은 고성장을 유지할 전망 - 미중 무역 갈등은 점차 심화되는 추세이나, 일대일로 협력국과의 수출입을 더욱 증대하여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대미 무역 타격은 일부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
해외	 <p>블룸버그 (Bloomberg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 6월 수출액은 3,079억 달러로 약 2년 만에 월별 실적 최고치 기록 - 무역 흑자 확대 추세는 중국경제 상황을 반영, 생산능력은 견조하나 내수는 약함 - 최근 아시아산 저가상품의 해외 수출공략이 확대되어 미국, 남미, 유럽 등이 반발하면서 자국 시장 보호무역조치 등을 강화함에 따라 향후 중국의 수출 강세 둔화 리스크 존재 - 6월 對EU, 미국 무역수지 흑자는 각각 2023년 1월,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기록 - 금년 상반기 대중국 FDI 투자액은 2020년 상반기 이래 가장 낮았으며, 무역상대국과의 관계 악화, 해외 높은 금리로 인한 자본 유출 등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
	 <p>로이터 (Reuters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월 수출증가율(8.6%)은 지난 15개월이래 가장 높았으며, 이는 미국 등 서방 무역상대국의 관세 인상을 앞두고 주문 및 선적이 당겨진 영향도 일부 반영됨 - 6월 수입은 △2.3% 감소하여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내수부진, 국내 소비 취약성을 드러냄 - 중국 수입의 약 1/3은 재수출용 전자제품 부품으로, 지속적인 수입 약화 추세는 향후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- 6월 무역수지 흑자는 약 990억 5천만 달러로 1981년 이래 월별 최고치 기록 - 최근 중국산 제품에 대해 무역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정부가 제시한 금년 경제성장률 5% 달성을 위한 수출 실적 압박도 커지는 상황

자료: 각 기관 및 언론사 발표 ('24.07.22 기준)

3. 전망 및 시사점

■ 중국 및 해외 각 기관은 2024년도 중국 GDP 성장률을 5% 내외로 예측

- 중국의 견조한 수출실적, 정부의 부동산 지원 정책 및 재정 지출 확대 등의 긍정적 영향과 주요국의 대중 견제, 중동 전쟁 등 불확실한 대외환경 지속과 시장 예상치(5% 초반)를 하회한 2분기 성장률(4.7%) 등 부정적 요소 병존

【주요 기관별 2024년 중국 GDP 전망 * 2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이전】

구분	기관	전망치	비고
중국	중신증권 (中信証券)	5.9%	- 하반기에 브릭스(BRICS) 정상회의, APEC 정상회의, 일대일로 정상회의 협력포럼 등 주요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, 글로벌 공급망 내 중국 경쟁우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- 전기자동차, 태양광 제품, 리튬 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첨단제조업이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
	자오상은행 (招商銀行)	5.1%	- 중국경제 전망 5.0%(‘23.12) → 5.1%(‘24.6)로 상향 조정 - 분기별 GDP 예측치: 3Q 4.9%, 4Q 5.1%
해외	IMF	5.0%	- 중국경제 전망 4.6%(‘23.11) → 5.0%(‘24.7) 상향 조정 - 글로벌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수입단가가 상승하고, 수입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악화될 수 있음
	WORLD BANK	4.8%	- 중국경제 전망 4.5%(‘24.1) → 4.8%(‘24.6)로 상향 조정 - 세계경제 전망 2.4%(‘24.1) → 2.6%(‘24.6)로 상향 조정 -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, 디플레이션, 무역 갈등 고조 등이 중국 경제성장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

자료: 각 기관 및 언론사 발표 (‘24.07.22 기준)

■ 대중 보호무역 조치 확대, 미국 선거, 중동 지역 갈등 등의 이슈로 하반기 대외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지속

- 금년 5월 중국산 전략제품(전기차, 배터리, 태양광 제품 등)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한 미국은 하반기 중국산 커넥티드카 관련 규제 등을 검토

■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확대 추세인 한중 교역은 하반기에도 증가세 지속 전망

- 2024년 상반기 중국의 對한국 월간 수입액 규모는 150억 달러(약 21조 원) 내외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성장세 지속

* 월별 대한민국 수입액: 3월(150억 달러), 4월 (145억 달러), 5월 (152억 달러), 6월 (148억 달러)

- 자오상은행(招商银行)은 금년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5.0% 증가, 고정자산투자는 4.9%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CPI, PPI는 각각 0.6% 증가, △1.0% 감소 예상, 수출 및 수입 증감률은 각각 4.0%, 2.5%로 한 자릿수 증가 전망

【최근 주요 경제지표 및 2024년 예측치】

(단위: 증감률 %)

구 분	경제성장률	소매판매 증감률	고정자산투자 증감률	CPI	PPI	수출증감률	수입증감률
2024년 상반기	5.0	3.7	3.9	0.1	△2.1	3.6	2.0
2024년 (예측치)	5.1	5.0	4.9	0.6	△1.0	4.0	2.5

자료: 자오상은행 (招商银行)

【참고 -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】

구 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 상반기
경제성장률 (%)	2.2	8.4	3.0	5.2	5.0
소매판매 증감률 (%)	△3.9	12.5	△0.2	7.2	3.7
고정자산투자 증감률 (%)	2.9	4.9	5.1	3.0	3.9
산업생산 증감률 (%)	2.4	10.4	3.4	4.6	6.0
PMI (% , 기말)	51.9	50.3	47.0	49.0	49.5
CPI (%)	2.5	0.9	2.0	0.2	0.1
PPI (%)	△1.8	8.1	4.1	△3.0	△2.1
실업률 (% , 기말)	5.2	5.1	5.5	5.2	5.0
외국인직접투자 (억 위안, %)	10,000 (6.2)	11,494 (14.9)	12,327 (6.3)	11,339 (△8.0)	4,989 (△29.1)
비금융 부문 해외직접투자 (억 위안, %)	7,598 (0.4)	7,332 (△3.5)	7,859 (7.2)	9,173 (16.7)	4,276* (19.9)
외환보유액 (억 \$, 기말)	32,165	32,502	31,277	32,380	32,224
평균 환율 (위안/달러)	6.8974	6.4512	6.7208	7.0423	7.1053

* 비금융 부문 해외직접투자는 2024.1~5월 기준
* 자료: 중국 국가통계국, 상무부, 인민은행 등